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육사업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발전은 신학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학교가 있는 곳에 목회지망생들이 몰렸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선교사들의 격려와 후원이 내국인 사역자들의 헌신을 지탱시키는 동력이었다. 교회성장의 열쇠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을 양육하여 배출시키는 곳은 신학교들이었다.

1) 요츠야선교부의 서울성서훈련원(1938-41)



서울성서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한국선교가 초기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산을 남기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커닝햄의 내국인 사역자들이 타교단 출신들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토마스 G. 히치

(Thomas G. Hitch) 선교사 가족이 1938년에 서울성서훈련원(Seoul Bible Training School)을 시작하여 3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교회들을 개척시켰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1941년에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선교를 중단하였고, 선교사들은 철수하였으며, 성서훈련원은 문을 닫아야했으므로 교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성서훈련원은 1938년 2월 서울 제1교회(아현정)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에 아현정 소재 2층을 임대하여 옮겨갔다. 당시 주간예 남자 7명, 여자 5명이 수업을 받았고, 야간에 남자 11명, 여자 2명이 수업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현직 목회자와 여전도자들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파송을 받았다.¹⁾ 인천 송헌기독교교회와 금곡동기독교교회를 세운 정삼선과 서울 제3교회 담임 김상익이 1940년에 졸업하였고, 인천 제4교회 담임 임준식, 서울 제5교회 임공철, 여전도사들인 임화순과 평화일 등이 공부하였다. 이인범 목사와 히치 부부, 그들의 두 딸, 에밀리(Emilie)와 애니(Annie)가 가르쳤고, 홍종숙 목사가 1939년에 교수와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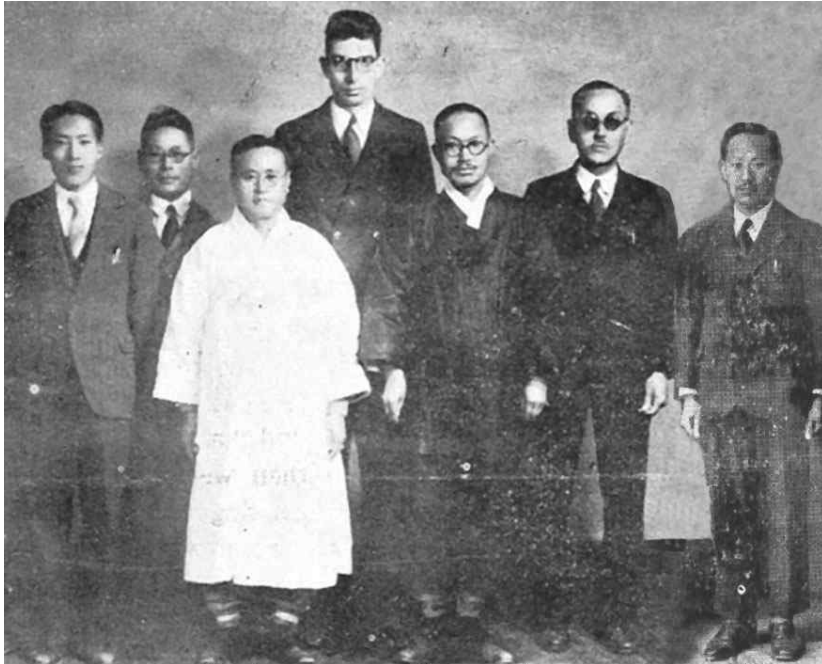
2) 서울기독교대학교

(1)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서훈련원(1937-40)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은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에 의해서 1937년 4월에 시작되어 1940년 말까지 4년간 지속되었다. 성서훈련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 선교부 지하실에서 일주일에 4일씩 강의가 이뤄졌다.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성낙소, 박판조, 백낙중 등이 초기 학생들이었고, 1940년 3월 25일 졸업

1)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Korean Training School," *Tokyo Christian*, November 1940, p. 3.

하였다.²⁾ 그러나 한국인성서훈련원은 1940년 6월 1일 안식년을 맞아 채이스 가족이 미국으로 떠났고,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 가족마저 전쟁의 위협 속에서 1940년 11월 16일 철수하였으며, 이듬해 12월 7일 기어코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국성서훈련원은 폐쇄된 상태로 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백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동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동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2)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의 서울성서신학교 (1949-80)

전후 존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1월 중순경에 입경하여 3

2) 성낙소, '제7장 기독교의 교회 선교사와 신학교 시작,'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월 1일 출국하였다. 이때 채이스의 가장 큰 관심은 선교부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고, 교회와 목회자들의 근황을 살피는 것이었다.³⁾ 다시 입경한 때는 1948년 10월 17일이었고, 힐 요한 가족이 1949년 2월 18일 입국하자,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쳐서 5만 불을 모금할 목적으로 2월 중순경에 재차 출국하였다.⁴⁾ 출국 전에 채이스는 전쟁으로 8년간이나 폐쇄된 한국인성서훈련원의 후신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개교시켰고,⁵⁾ 그 운영을 재입국한 힐에게 맡겨 놓고 동년 9월에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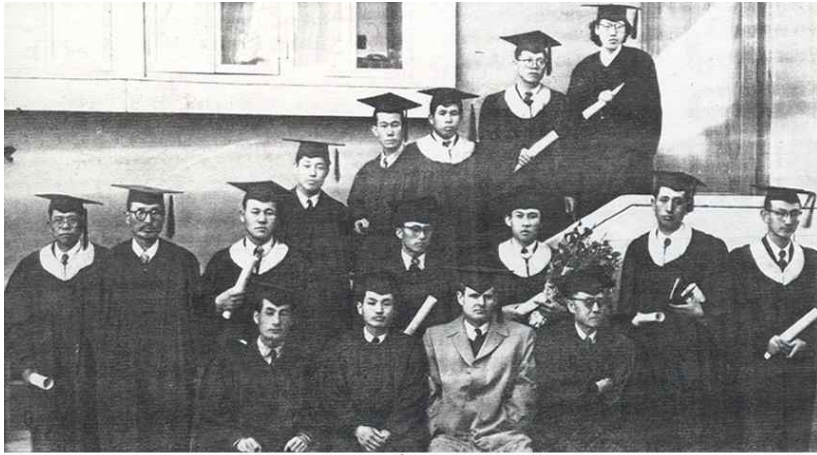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한 힐 요한은 자신의 연지동 임대주택에서 3월 15일부터 봄 학기를 시작하였고, 학생들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겼으나 이듬해 6.25동란이 터짐으로써 또 다시 문을 닫아야 했다. 일본으로 피신했던 힐은 9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 5일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이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⁶⁾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다시 신학교의 문을 열었다.⁷⁾

3)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 7-8.

4) "The Year 1948," "Personnel Transfers" and "An Announcement,"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p. 1, 3, 4.

5) "The Korea Bible Institute,"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1. 1955년까지 힐을 도와 신학교에서 교수와 교감을 지낸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와 <신약교회 목회학>에서 이 신학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라고 불렀다.

6) John J. Hill,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16 December 1950, p. 787; "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January 1951, p. 51.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55년 3월 3일)

앞줄 좌측부터 이신, 김동렬, 존 힐, 김동수 동역. 졸업생(무순): 함태영(좌측 세 번째), 김현숙(뒷줄 끝), 최병식, 김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희건, 이종훈, 김봉선, 유현성, 변승택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동일시되어 1949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1955년 3월 3일의 졸업식을 서울성서신학교 제1회로, 1960년 4월 1일 졸업식을 제4회로 표기하였으나 이것은 바른 표기가 아니었다고 본다. 서울성서신학교가 한국인성서훈련원과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의 연장이었고, 또 송월동 선교부가 팔릴 때까지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성서신학교의 시작은 1949년이 아니라, 1937년이라야 옳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연역은 이 점을 반영하여 개교연도를 1937년으로 잡고 있다.

한편 1955년 11월에 입국하여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서울성서신학교 건물)을 인수받고, 제1대 교장 존 채이스, 제2대 교장 힐 요한에 이어서 서울성서신학교 제3대 교장에 취임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1959년 6월 3일까지 선교부의 전 재산을 모두 팔고,⁸⁾ 7,087평의 역촌동 땅을 매입하여 새 캠퍼

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8)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스를 조성하여⁹⁾ 1963년 봄 학기를 시작하였다.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왼쪽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테일러는 교명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변경하였고,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신학교의 전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켰다.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는 1963년에 교명을 다시 서울성서신학교로 바꿨고, 1966년에는 서울성서신학원의 인가를 받았다.

테일러의 서울성서신학교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은 1962년 5월 25일에 입국한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이어받아 1990년대까지 발전시켜나갔다. 배도은은 1975년 서울성서신학교 제4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는 1981년 3월 2일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통합감사에 배를 드림으로써 서울기독대학교로 발전되었다.¹⁰⁾

9)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10)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p. 74, 104;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 152.

(3) 대한기독교신학교(1965-80)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미국의 링컨기독교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최순국 목사는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상임위원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 위촉되었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리드(Ira B. Read)가 위촉되었다.¹¹⁾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원호로 임시교사, 1965년경)
교수진: 좌측부터 김진문 목사, 성수경 목사, 최윤권 목사, 김규상 목사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개

11)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leaflets), November 1965.

교되었고,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으며,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 회장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희,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에는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¹²⁾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는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의 대를 이어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여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개명하였다.

(4) 서울기독교대학교(1981-현재)

1981년 두 신학교가 통합될 당시 서울성서신학교는 신사동에 대지 2,400여 평, 교사 1동(449.5평), 식당 및 기숙사 1동(50평), 남자기숙사 1동(51.33평), 사택 1동(13.7평),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임야 5만9,010평을 소유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용산구 효창동에 토지(328평), 교사 1동(481.3평),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에 임야와 전(田) 27만 9천여 평을 소유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통합)는 1985년 4년제 대학학력 인정교로 지정받은 이후 1987년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1990년 교사 1동(최상현 기념관)을 신축하였다. 1996년 3월 초대총장으로 문언식목사가 취임하였고, 이듬해 가을 본관 건물(환원 교육관)이 준공되었다.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격되었다. 1998년 9월 최윤권 목사가 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12)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1.

대한기독교대학교는 1999년 11월 제3대 총장에 취임한 이강평 목사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이강평 목사는 취임 후 교명을 서울기독교대학교로 바꾸고,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동시에 기존 기숙사를 허문 자리에 기숙사 및 교사 1동(채이스 기념관)을 신축하였다. 또 일반대학원(신학과, 사회복지과, 2000), 전문대학원(신학과, 사회복지과, 2001), 특수대학원(치유상담대학원, 2002)을 개설하고, 학부에 무용학과(2000), 전자상거래학과(2001. 2003년에 국제경영학과로 개명), 음악학과(2002)를 증설하여, 학교를 현재의 종합대학교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5년까지 서울기독교대학교는 학부 5개 학과(신학과, 사회복지과, 무용학과, 국제경영학과, 음악과)에 660여명의 학생, 2개 일반대학원 신학 석·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 전문대학원 목회학 석·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 특수대학원(치유상담 석사과정)에 250여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성인교육과정(평생연구원) 5개 학과(신학, 사회복지, 무용, 음악, 교

양)와 몇 개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다.¹³⁾

3) 한성신학교

(1) 한국성서신학교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개교되었다. 첫 수업은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당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1958년에 신축된 20평 흙벽돌집)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며,¹⁴⁾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 목사가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고광석 시무)로 옮겼다가 1961년에 가장동으로 옮겼다.¹⁵⁾

힐은 가정문제로 1955년에 한국을 떠나 있다가 중국, 미얀마, 일본, 한국에서 사역했던 제인 키넬트(Jane Kinnett)와 재혼 후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0년대 말까지 부강교회와 선화교회를 설립하는 등 충청과 전라권에서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 양성과 교회개척에 힘을 쏟으며, 수십여 개 교회들을 자신의 영향권아래에 두었던 김은석 목사와 논산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장로가 대전 정착에 큰 힘을 보탰다.

힐은 1961년에 가장동 유등천변의 큰 부지를 매입하여 천막

13) 정남수 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스톤-캠벨 운동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2015), pp. 311-312, s.v. ‘서울기독교대학교.’

14) 교수진은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 등이었다.

15) 이신은 1959년과 60년 초에 조 세걸키와 버트 엘리스가 설립한 ‘한국방송선교회’(Korean Broadcasting Mission)에 고용되어 부산문화방송에서 방송설교를 하였고,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교회를 시작하였고, 선교사 주택, 예배당, 학생숙소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 장학 명목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가장동 캠퍼스시대가 열리면서 1962년 3월에 교명을 1949년 서울에서 잠시 사용했던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바꿨고, 이 명칭은 20년간 사용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1963년 1월 21일 소천)의 신화신학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 영향권 아래 있었던 충청과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성서신학교와 힐 요한 선교사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¹⁶⁾ 그의 지도력으로 1960년대에 9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를 섬김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고,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힐이 재임했던 1960년대 기간에 가장동 캠퍼스에는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위한 2층 저택과 단층 주택(소실), 학생들이 만든 시멘트블록 교회당과 기숙사와 몇 채의 작은 직원 숙소들 및 고아들을 위한 단층 벽돌슬래브주택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회당은 교사가 건축될 때까지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신학교 원룸강의실로 쓰였다. 힐은 1964년에 최초의 교사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현관이 딸린 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이었다. 선교사역 30주년이 되던 1969년 봄에 본관을 2층으로 올리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연되다가 선교사 조 가맨(Joe Garman)과 김찬영 목사의 도움으로 1972년 초여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6월에 힐과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과 패츄리사

16) 이때의 교수들은 힐 요한과 제인,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 이신, 최요열, 김찬영(통역), 소교민(통역), 리처드 래시(Richard Lash), 김희영(통역), 임춘봉, 이은수, 김치연, 박태규(통역),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Fred Hoffman), 힐 버지니아(Virginia Hill) 등이었다.



1972년 6월 힐 선교사 가족 송별 단체 사진.

(Patricia) 선교사 부부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때로부터 90년대 말까지 근 30년간 충청과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김은석과 힐요한에 이어 김

찬영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조 가맨은 1967년 가을과 힐 가족의 안식년 기간이었던 1969-70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고, 큰 액수의 자금을 모금하여 본관증축공사에 도움을 주었다. 김찬영은 1959년부터 힐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충남대학교 야간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 도미하여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으며, 1972년 1월 21일 제2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김찬영은 힐이 시작한 본관2층의 완공공사뿐 아니라, 3층 증축을 시작으로 70년대와 80년대 내내 부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건축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80년대에는 등록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했고, 캠퍼스 이전과 대학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졌다.

(2) 한성신학교

1981년 2월 16일 학교법인 성령학원과 한성신학교(Hansun Theological College)란 교명으로 모집정원 70명(신학교 40명, 기독교육과 30명)의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문교 1041.4-133)를 받았다. 교명을 '한국성서'의 줄임말인 '한성'으로 바꾼 이유는 서울 노원구에 이미 같은 이름의 4년제 각종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학교 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캠퍼스 내에서 보육

원(1968년 설립)과 한성고등기술학교(1978년 설립) 및 한성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1983년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인가(문교 1020-1646)와 모집정원 60명(야간부 신학교 30명, 기독교육과 30명)이 증원됨으로써 한성고등기술학교가 폐교되고, 유치원만 유지되었다. 1986년 말에 학과증원(주간부 종교음악과, 야간부 사회복지과)과 1987년 말에 모집인원증원으로 입학정원이 총 180명이 되었다. 1998년 9월 8일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¹⁷⁾



1986년 대전시 가장동 한성신학교 캠퍼스(배구대항)

증원증과로 포화 상태에 이른 한성신학교는 1986년 말에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에 12만평 교지를 확보하고, 1988년 4월 30일에 기공식

예배를 드렸으며, 1989년 8월까지 본관 4층, 별관 4층, 기숙사 3층,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갖춘 새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교롭게도 동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54차 총회 때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듬해인 1990년 2월 한성교역자들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발족되었다. 출신학교별 친목단체인 기목회와 한성교역자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동년 4월 3일에 협의회 심의위원회가 총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제명하였고, 4월 30일 <환원>지가 분리를 발표함으로써 분열이 고착되었으며, 여러 번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찬영 박사의 영향력아래서 30년간 배출된 수백 명의 졸업

17) 이 무렵 그리스도의 교회(총회) 소속 신학과 교수들로는 최용호, 장성우, 김상호, 조동호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과 후진양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생들은 교회성장의 불을 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개척후원회'가 김찬영, 조동호, 김상호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충남권 최초로 배출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각 기관에 진출하였다. 음악학과 졸업생들 역시 각자의 지역에 음악학원을 개설하여 학원장으로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하였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몇 사람은 정규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다.¹⁸⁾



2000년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한민학교(전 한성신학교) 캠퍼스

학교가 새 캠퍼스로 이전한 1990년대는 대학개편의 기회이자 위기였다. 캠퍼스 이전 초기 수년간은 입학정원 180명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캠퍼스가 대전권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데다가 무리하게 충원된 교수진과 교직원, 노조설립, 대학개편을 바라는 학생들의 잦은 시위, 대학개편에 필요한 재원부족, 무엇보다도 캠퍼스 이전직후에 터진 내부 갈등은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20여개 이상의 각종대학들 가운데 대학개편 1순위로 꼽히던 학교를 수렁에 빠지게

18) 김찬영 박사 체제에서 교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김진문(1982-84), 김찬영(1985-91), 문원섭(1991-94), 이충구(전 공주교육대 학장, 1994-95), 박영배(직무대리, 1995-96), 최찬규(직무대리, 1996-97), 백형린(1997-99) 순이었다.

하였고, 장로교 목사 조준상이 1999년 9월 30일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세기가 바뀐 2000년대는 2013년 8월 폐교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이로써 30여 년간 한성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던 김찬영 박사 및 패츄리사 선교사 부부는 내부갈등이 빚은 법적제약으로 학교를 떠나야했다.

조준상에 의해서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성령학원 및 학교명 한성신학교가 각각 한민족학원 및 한민학교로 변경되면서 한성신학교로써 20년간 쌓아온 명성을 잃게 되었고, 학생수 감소와 부실운영 등으로 재정난은 날로 커져갔으며, 학과와 정원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하였다.¹⁹⁾ 2012년 한민학교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검사가 이뤄졌고, 2013년 5월 2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한민학교 폐교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8월 31일 자로 폐교하였고, 재학생은 타 대학교 유사 학과에 특별 편입학하였다.²⁰⁾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한성신학교를 잃은 아픔을 딛고, 학교의 54년 전통과 뿌리를 잇고, 목회자 수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법인과 교명이 변경된 때로부터 총회직영 한성신학교를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총회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회

19) 2001년 1월 4일에 국제사회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다시 변경되었고, 2003년 6월 12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가 신설되었으며, 2005년 10월 20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 레저스포츠경영학전공이 스포츠경영학과로, 경찰경호행정학전공이 경찰행정학과로 변경되었다.

20) 조준상 체제에서 총장을 역임한 인문들로는 원동연(2000-01), 장성우(직무대리, 2001), 심태섭(2001-05), 최찬규(직무대리, 2005), 김병우(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2006-2008), 조준상(2008-12), 박영술(직무대리, 2013) 순이었다. 학교설립이후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밋슨 이사장으로는 힐 요한(64-75년), 김 패츄리사(75-76년), 힐 요한(76-77년), 밥 위릭(78-81년), 김찬영(81-89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는 성완용, 김 패츄리사, 김찬영, 전영권, 조준상, 심정지(폐교 결정) 등이었다. 이 시절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교수로 남았던 조동호는 김병우 총장과 조준상 총장 재임 때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말에 희망퇴직하였다.

소속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이 총회직영 한성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었다.²¹⁾

4) 학교법인 동서학원

(1) 경남정보대학



1965년 11월 래쉬 선교사 부부와 장성만 목사 부부(오른쪽)가 학교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육사업의 첫 출발이었다.

1950년대 이후 부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개의 원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인 장성만 목사가 펼친 교육 100년 대계(大計)의 성공한 꿈이었다. 그의 꿈은 오늘날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로 실현되었다. 또 하나는 알렉스 빌즈가 펼친 실패한 기독교라디오극동방송국에의 꿈이었다. 비록 자금 부족으로 알렉스의 꿈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의 충만한 도전 정신은 꿈을 가진 젊은 장성만 목

사에게 큰 에너지로 작용하였다.

경남정보대학은 장성만 목사 부부가 유학을 마치고 1964년 늦여름에 돌아와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부부와 함께 동래 온천장에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2년제 대학과정으로 출범시킨 영남기독교실업학교가 모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강릉과 부산을 오가며 대학설립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무렵 래쉬는 강릉사역의 제한성과 두 딸의

2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박대순 저, <간추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오늘의문학사, 1998); 조동호 지음,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교육문제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았던 때였다.²²⁾ 래쉬는 장성만 목사의 대학설립의 꿈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고, 장성만은 증원군을 얻은 셈이었다. 이에 래쉬 가족은 1964년부터 부산으로 옮겨 장성만 부부의 귀국을 기다리는 동안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에 출강하였다. 장성만 부부도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의 학업과 교회순방을 마치고 1964년 늦여름에 귀국하였다.

래쉬와 장성만은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를 출범시켰다. 래쉬에 의하면,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개강예배가 있었다. 강의는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과 유사한 과목들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이었다.²³⁾

영남기독교실업학교는 1965년 11월 20일 부산시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알과 홀'(2층, 래쉬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교명이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되었다. 초대 교장에 장성만, 교감에 래쉬가 취임하였다.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해 장성만 목사는 서울과 부산을 무려 36번이나 왕복하였다. 1967년 첫 졸업식 때, 입학생 19명 가운데 14명이 졸업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1969년 8월 5일 미국에 들어가 20개 주를 6개월간 순방하면서 도움을 호소한 결과 1969년 12월 1일 재미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1970년 5월 28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를, 12월 16일 부산실업전문학교의 정식인가를 받아냈다. 부산실업전

22)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23) Flashes from the Lashes, 2 February 1965.

문학교는 1971년 3월 1일 정식 개교되었고,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7년 8월 26일 경남공업전문학교, 1979년 1월 1일 경남공업전문대학, 오늘의 경남정보대학으로 개편되었다.²⁴⁾

(2)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는 장성만 목사가 12년간 드린 기도의 열매이다. 장성만은 재미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에 설립신청을 하였고, 1991년 11월 15일 4년제 동서공과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2년 3월 3일 개교하였다. 이후 동서공과대학은 동서대학교로 개편되었다.

장성만 목사는 1995년 동서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과 신앙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다. 장성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작사하고 김병율이 작곡한 '일터는 삼천리'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즐겨 불렀다.

반만년 묵혀놓은/삼천리 내 강토/피땀 흘려 파헤쳐서/파종해보세/
심은 뜻 귀하다면/알찬 열매 맺으리/아 수확의 그날 바라며/쉬임없이
나가네/한삽 두삽 우리 살림/불어난다/한손에 성경/또 한손엔 보습/우
리의 일터는/옥토 삼천리

장성만은 총장재임시절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20여 국가 78개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대학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캠퍼스를 교육존, 연구존, 스포츠존으로 분류해 공원화시켰다. 강의실에 최첨단 시설을 갖춰 화상강의가 가능토록 하였고, 교수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ABC등급으로 나뉘 등급에 따라 업적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교수에게는 '브랜드 교수'라는 칭호와 함께 연구비지급, 정년보장, 강의시간

24)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2009년 4-5일부터 5월 22일자.

조정 등의 특혜를 주었다.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장성만은 학부에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 5개 학과를 만들어 280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국내 여러 기업과 산학협정을 맺었으며, 일본 나가오카 조형대학, 독일 바이센제 예술대학,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 상하이 공정대학, 홍콩 폴리텍대학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교수 및 학생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동서대에서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미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장성만 총장은 교육세계화에 힘을 기우렸다. 외국인 교수를 50명 넘게 채용하였고, 유학생들의 유치는 물론이고 재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일에도 힘썼다. 또 장성만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대학과 국립 사할린대학, 미국의 호프대학과 페리디킨슨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과 조사이국제대학, 스웨덴의 왕립대학, 독일의 베를린공과대학, 핀란드의 오울루대학, 중국의 중산대학과 산둥대학과 북경이공대학과 중남재경대학과 상해공정기술대학, 말레이시아의 엠엠유(MMU) 등 20여국의 78개 대학과 연구소간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대학과 교수 및 학생의 교류는 물론 복수학위 수여까지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에 분교들도 설립하였다. 캠퍼스에는 다국적 교수와 학생들로 넘쳐났고, 2006년에 세계총장회의를 유

치하여 12개 국가에서 21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학간 상호 학점인정, 복수학위 수여, 유학생 교류, 세계봉사단 결성 등을 담은 '부산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서대학교는 국제 규모의 수영장과 학생 복지 시설을 갖춘 1만평 규모의 엄광문화관을 건축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또 캠퍼스 내에 대학교회를 건축하여 매주 일반예배, 학생채플 예배, 매월 학부기도회, 토요일 율레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학교 법인 동서학원에는 현재 동서대학교에 1만여 명, 경남정보대학에 8천여 명, 부산디지털대학교에 4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교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²⁵⁾

5) 기타 초중등학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관련된 기독교들은 요츠야선교부의 김영배 전도자가 1930년대에 인천에 세운 초등학교가 최초였다. 1937년 당시 학생이 149명이었고, 교사가 3명이었다.²⁶⁾ 1940년대 말에는 백낙중 목사가 공덕동에 공민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 공덕교회도 있었다.²⁷⁾ 1952년 11월 15일에는 창현 함태영 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에서 복음공민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춘식 목사가 이 학교를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발전시켰다. 함태영의 셋째 사위인 순동식은 이 학교가 배출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이다. 대명중학교는 1974년 설립 20주년 기념식 때 설립자 함태영 목사에게 공로표창과 황금메달을 수여하였다.²⁸⁾ 1954년 8월 7

25) *Ibid.*

26) "A Visit to Korea (Concluded)," *Tokyo Christian*, July 1937, p. 2.

27) John T. Chase, "Church Established During War by Korean Christians," *Christian Standard*, 23 July 1949, p. 467;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2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337-345.

일에는 김광수 목사(장로)가 피난민촌이었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신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성실고등공민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5명의 목회자가 이곳에서 배출되었다.²⁹⁾

1950년대 후반기에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세 개의 중학교에 도움을 주었다.³⁰⁾ 두 학교는 필요한 도움을 줬고, 한 곳은 매월 75달러씩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교사들 봉급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액수였다. 매월 지원했던 학교는 영광농축기술학교로써 38선 근처 포천에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자였고, 박혁 목사가 교장이었다. 그곳에 박혁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 17명으로 시작되어 62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 농업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써 매일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공민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다. 신갈에도 이기구 목사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었다.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교사를 건축하였지만,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 서울 근교에 또 하나의 학교가 운영되었는데, 300여명의 학생 대부분이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의 자녀들이었다. 난로도 없는 세 개의 천막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졌다.

1960년대에도 힐 요한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들이 있었다. 논산시 연무읍 에텐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장로가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2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352-356.

30)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4;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4;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2, 4.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논산 순의도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임홍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이리 맵아 어린이학교 등이 힐의 도움을 받았던 학교들이었다.³¹⁾ 이들 가운데 두 곳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았지만, 1965년의 힐의 선교소식지와 버지니아 힐의 편지에 의하면,³²⁾ 이들 선교사들은 수백 명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1975년에는 배도은 선교사가 이광 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였고, 현재 서울기독교대학교 부설 자동차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1978년에는 김찬영 목사가 한성신학교 부설 한성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한성신학교가 1983년 10월 5일 대학학력인정교로 승격되면서 건물의 협소함 때문에 폐교되었다. 한성고등기술학교 출신들 중에서도 목사와 사모가 배출되었다.

31)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 pp. 18-19, 131-133.

32)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20 July-20 November 1966; 14 October 1967.